

[기획]

희망의날 지방선거 D-6

5·31 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일보는 광주와 전남지역 27개 기초단체장 선거 관세를 분석, 후보자간 우위를 점하기 힘든 접전 지역을 찾아간다. 해당 지역 후보자간 관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종반 선거전략을 소개한다. (※우=열린우리당, 한=한나라당, 민=민주당, 노=민주당, 무=무소속)

- 격전지를 가다 -

■5월15일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 (서구)

Table with 5 columns: 후보, 지지율(%), and 4 candidate names: 김중식(우), 전주연(민), 강기수(노), 신현구(무). 지지율: 28.7, 22.6, 9.9, 9.2, 29.5.

■연령별 유권자 현황

Table with 8 columns: 구 분, 계,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선거인수(명) and 비율(%).

■5월15일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 (북구)

Table with 5 columns: 후보, 지지율(%), and 4 candidate names: 이형석(우), 김천국(한), 송광운(민), 오창규(노), 나정만(무). 지지율: 26.2, 2.5, 28.2, 7.3, 2.8, 32.9.

■연령별 유권자 현황

Table with 8 columns: 구 분, 계,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선거인수(명) and 비율(%).

■5월15일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 (광산구)

Table with 5 columns: 후보, 지지율(%), and 4 candidate names: 이상갑(우), 전갑길(민), 이승남(노), 송병태(무), 김익주(무). 지지율: 10.2, 23.0, 8.9, 22.3, 1.0, 34.6.

■연령별 유권자 현황

Table with 8 columns: 구 분, 계,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선거인수(명) and 비율(%).

현직 구청장 VS 민주 바람

■광주 서구

서구의 유권자 수는 22만1천여명이다. 이 중 40% 가까운 8만여명이 금호·상무·중앙지구의 아파트촌에 살고 있어 이 지역에서 우세를 확보한 후보가 전체 선거 승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구청장인 열린우리당 김중식 후보가 다소 앞서서 상황에서 민주당 전주연 후보가 치열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에 민노당의 강기수 후보와 무소속의 신현구 후보가 극적인 반전을 꿈꾸며 부동층을 잡기 위해

- 김중식 중산층 우위·여성표 공략
전주연 지지층 결집 갈수록 강화
강기수 서민층 공략 20%대 자신
신현구 막판 무소속 바람 '대반전'

은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김중식 후보는 현직 청장으로서 가질 수 있는 높은 인지도와 탄탄한 조직을 바탕으로 두 국회의원의 조직을 최대한 가동, 승세를 굳힌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중산층이 몰려사는 금호·상무·중앙지구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 남성유권자보다는 여성유권자에게 어필하고 있다는 것이 김 후보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광주일보 여론조사에서도 여성응답자 사이에서는 선두 경쟁을 벌이는 전주연 후보보다 10% 이상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후보 측은 특히 후보 부인의 선거운동이 여성표 공략

에 주축하고 있다고 판단. 보다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후보는 또 투표참여도가 높은 40대 이상에서 확고히 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공략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주연 후보는 선거가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다소 밀리고 있던 상황이 역전됐다고 자신했다. 특히 여론조사 지지율이 다소 낮게 나오더라도 그 내용을 분석한 개별분석에서는 앞서고 있어 최종 선거 결과에서는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 이원영 의원의 '광주사태' 발언과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산정권'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강화되고 있어 시간이 갈수록 전 후보가 더 큰 차이를 보이며 김 후보를 앞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 후보가 강한 지역은 양동과 농성동 등 구 주택가지역. 또 남성과 20대 유권자 사이에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 후보는 비교적 약세 지역인 중앙동과 금호동 지역

을 집중 공략, 지지율을 끌어 올리고 구 도심지역 구민들의 현 청장에 대한 불만을 최대한 활용하면 이번 선거에서 무난히 승리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강기수 후보는 민노당 후보만이 서민이 잘 사는 구정을 펼칠 수 있다며 서민층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전략이 유권자를 파고 들면 결국 20%이상 득표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것이 강 후보측 예상이다.

신현구 후보는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과열추락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식상한 유권자와 부동층이 참신한 무소속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4년여 동안 공들였던 금호지구 등을 중심으로 무소속 막판 바람을 기대하고 있다.

아파트 지역 최대 승부처

■광주 북구

광주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를 가진 지역이다. 북구 유권자 수 33만3천여명은 광주 동구 유권자의 3배에 달한다. 일곡·문흥·두암·용봉·양산지구 등 아파트 밀집지역의 유권자가 65%가량 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구청장 선거의 현재 관세는 열린우리당 이형석 후보와 민주당 송광운 후보가 있 치라 뒤지락 선두를 주고 받으며 접전을 펼

- 이형석 젊은층·김재규씨 지원 든든
김천국 인지도 확산, 바닥표 다지기
송광운 남성층·40대이상 지지 확고
오창규·나정만 15%대 득표 전력투구

치고 있다. 선거전에 다소 늦게 뛰어든 송 후보가 초반에는 다소 밀리다가 인물론이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면서 역전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평가다. 하지만 또 다시 북구에서 재선 구청장을 지낸 김재규 전 북구청장이 이 후보를 적극 지원하면서 선거관세를 오리무중이 됐다.

이형석 후보는 젊은 패기 때문에 아파트 거주자와 여성층,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지난 15일 실시된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는 여성층에서 28.6%대 21.7%, 20대 이하 층에서 39.7%대 15.0%의 지지율을 송 후보에 앞섰다. 특히 북구 내

최대 거주지역으로 유권자 5만명이 사는 일곡지구를 중심으로 지지세가 확고해지고 있어 선거 승리가 무난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가 승리를 장담하는 또 다른 요인은 김재규 전 북구청장이 선거전에 가세한 점이다. 8년 동안 북구청장을 맡아온 깨닭에 김 전 청장이 나선 순간 선거관세가 역전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취약층이었던 노인층 공략에 김 전 청장이 적극 나서면서 50~60대 이상의 투표 확실층 사이에서도 지지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송광운 후보는 행정 전문가로서 전남도 행정부지사까지 지낸 점을 강조하며 인물론을 최대한 활용한 결과, 이미 오차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우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송 후보의 고향인 장성 출신들 사이에서 지지층 결집이 확고해지고 있어 선거막판 변수도 없다는 분석이다.

송 후보는 남성층과 40대 이상 유권자에게서 호응이 높은 편이다. 지난 15일 광주일보 여론조사 결과, 송 후보는 남성층에서 35.0%대 23.8%, 40대에서 35.3%대 21.7%, 50대에서 33.8%대 16.4%의 지지율로 이 후보를 앞섰다.

또 고졸 유권자 사이에서 35.1%대 20.5%, 중졸 이하 유권자 사이에서 25.8%대 15.0%로 이 후보를 제압했다. 송 후보 측은 김 전 청장의 가세가 부담스럽긴 하나 자신의 선거가 아닌 만큼 폭발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선거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전보 구청과 서민 정치를 꿈꾸는 민노당 오창규 후보가 15%이상의 득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한나라당 김천국 후보와 무소속 나정만 후보도 인지도 확산을 위해 발마타이 닦도록 구민 사이를 누비고 있다.

전·송 양강 구도...이 추격

■광주 광산구

매년 1만명씩 인구가 늘어난다는 광산구는 유권자 수가 20만8천명이다. 최근 몇년 동안 외부인구의 유입이 늘면서 30~40대 유권자 비율이 56%로 다른 어느 구보다 높다.

반면 50~60대 유권자는 23%에 불과하다. 또 첨단·비야지구, 운남·신창·신가지구 유권자가 전체 광산구 유권자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신촌 주거단지 유권자의 표심이 이번 지방선거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산구청장 선거는 민주당 전갑길 후보

- 이상갑 지역발전 책임자 최대 부각
전갑길 조직·지역관리·인물론 자신
송병태 학생층·30대 이하 지지 앞서
이승남·김익주 두자릿수 득표율 최선

와 현 청장인 무소속 송병태 후보 사이의 치열한 선두 다툼 속에 열린우리당 이상갑 후보와 민노당 이승남 후보가 막바지 역전을 꿈꾸며 팽추격 중이다. 또 무소속 김익주 후보도 두자릿수 득표율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 전갑길 후보는 2년 전 총선 패배 후에도 꾸준한 지역관리를 해와 조직면에서 현 청장에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또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인물론에서도 우세하며 경찰지역 중에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많이 때문에 이를 표로 연결하면 승리가 무난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 후보는 남성층, 40대 이상 유권자에게 인기가 높다. 지난 15일 실시된 광주일

보 여론조사 결과, 전 후보는 남성 응답자 사이에서 27.2%대 24.3%, 40대에서 32.5%대 20.2%, 50대 이상에서 23.4%대 19.4% 지지율로 송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후보 측은 첨단 2동과 도산동 등 최근 아파트 입주자 사이에서 다소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승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소속 송병태 후보는 8년간 구청장을 지내면서 다진 조직과 높은 인지도 때문에 무소속의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 특히 송 후보가 구정을 이끄는 동안 광산지역의 인구가 늘고 있는 점을 유권자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하면 어렵지 않게 승세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 후보는 30대 이하와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지난 15일 여론조사 결과, 송 후보는 30대에서 24.1%대 19.0%, 20대 이하에서 24.7%대 18.6%, 학생 사이에서 33.1%대 10.0%의 지지율로 전 후보를 각

각 압도했다. 60대 이상 노인층 지지율이 현재는 다소 낮지만 이제 막 노인 조직을 가동한 때문에 3~4일 후엔 노인층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 승세가 굳어진다고 송 후보 측은 예상하고 있다.

두 거물의 싸움에 가려져 있어 다소 힘든 싸움을 펼치고 있는 이상갑 후보는 현재는 지지율이 다소 약하게 나오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광주시민의 지력이 결국 열린우리당 후보를 승리로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젊은 구청장만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광산구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며 바닥다지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 후보는 남성층, 40대 이상 유권자에게 인기가 높다. 지난 15일 실시된 광주일 /북지역기자 jpkpark@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Naeyoung High School Academy (낙내영고시학원) featuring 'Eduview' and 'Eduview' logos, listing various cours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Kimjaegyu Police Academy (김재규 경찰학원) featuring '대한민국 경찰 드림팀 광주 상륙!!!' and '노랑진 경찰학원 그명성 그대로...'.

Advertisement for Hanbitgosi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경찰직, 검찰직, 교정직공채 준비생 절호의 기회!!' and '법무부교정직특채 1,003여명 확정!!'.

Advertisement for Gwangju Gosi (광주고시학원) featuring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and '6월 1일 첫진도 시작반'.

Advertisement for Kimjaegyu Police Academy (김재규 경찰학원) featuring '경찰공무원 멈추지 않는 합격신화!!' and '김재규 경찰학원 전문 시스템'.

Advertisement for Hanbitgosi (한빛고시학원) featuring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 시험대비 = 7·9급 공무원 대개강'.